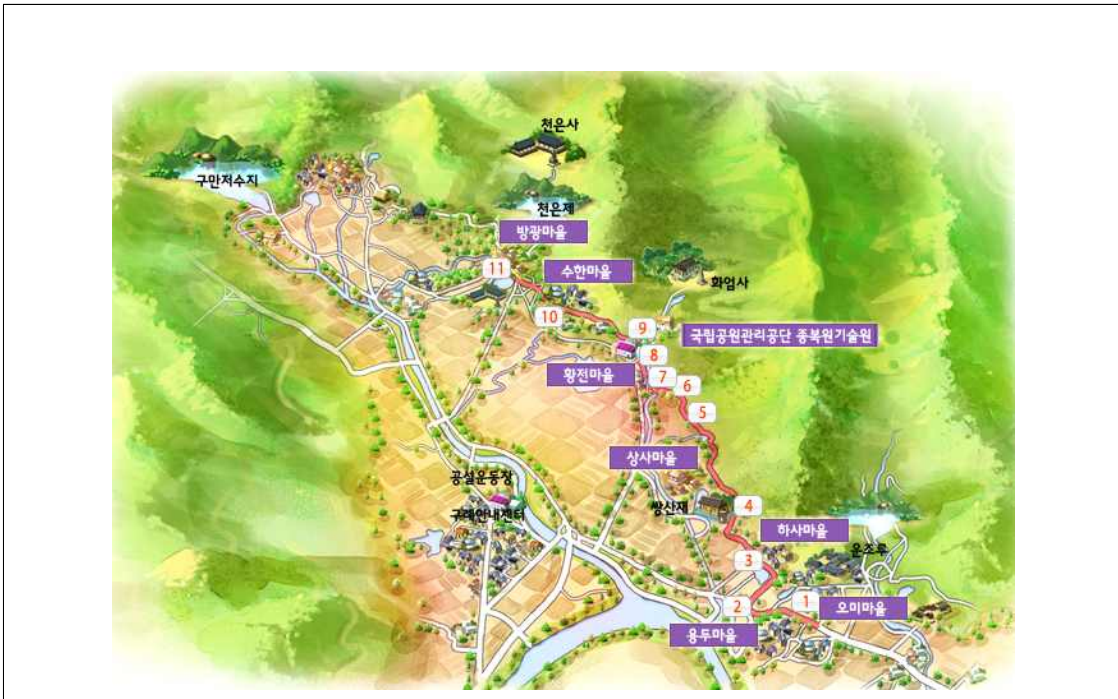


오미-방광 구간

■ 코스 지도

옛 마을의 정취와 지리산의 생태를 만날 수 있는 코스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 구분 | 지명 | 주요내용 | 비고 |
|----|------------|---------------|------|
| 1 | 구간 개요 | | |
| 2 | 오미마을 | 오미마을 풍수이야기 | 민속자료 |
| 3 | 배틀재 | 배틀재 이야기 | 민속자료 |
| 4 | 하사마을 | 사도리-주마야토의 기원 | 설화 |
| 5 | 상사마을 | 장수촌 상사마을의 당물샘 | 생태 |
| 6 | 국립공원 | 지리산국립공원 이야기 | 생태 |
| 7 | 묵담과 방죽 | 묵담과 방죽의 생태계 | |
| 8 | 황전마을 | 황전마을 달집태우기 | 생태 |
| 9 | 들돌과 두레 이야기 | 민속 | 민속자료 |
| 10 | 종복원기술원 | 반달곰의 희망 | 생태 |
| 11 | 수한마을 | 찬물이 흐르는 마을 | 민속자료 |
| 12 | 방광마을 | 옛 구례의 중심지 | 민속자료 |

1. 구간소개

구례의 넓은 뜰을 내내 품고 걷는다. 끝없이 팔을 벌려 손짓하는 넓은 들판은 구례의 넉넉한 인심인 듯 포근하다.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어느 새 마음 구석구석이 촉촉히 젖어드는 길, 오미에서 방광, 방광에서 오미를 잇는 길이다.

쪽 뺨은 임도와 아기자기한 숲길을 번갈아 걷다보면 어느 새 지리산이 품고 있는 일곱 개의 마을을 만난다. 다정히 손 내미는 이 길과 벌써 친구가 되어버린 탓일까, 이방인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마실가는 동네 아낙처럼 발걸음이 경쾌해진다.

낮선 길손조차도 어머니의 눈길로 품어주는 지리산이 있기에 지친 마음마저 편히 내려놓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걸어본다.

2. 오미마을

조선 제일 명당자리라는 이곳은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이고 마을 사람들은 오미동이라 부른다. 운조루가 있는 곳으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오미마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마을이다.

오미마을 들판에 서면 그 안온함에 깊은 숨을 내쉬게 된다. 땅에서 스며나오는 기운 때문일까, 오래 떨어져 있던 어미 품을 찾아 돌아온 어린 강아지 마냥 몸이 녹고 마음이 풀린다. 오미마을 들판은 ‘종자뜰’ 이라고 불리는데, 지리산 일대에 홍수나 가뭄이 들어 곡식 농사를 망치더라도 이곳 오미마을 들판에서만은 씨앗은 건질 수 있다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뒤로는 형제봉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앞으로는 섬진강이 살짜기 마을을 감싸며 흐르는 오미마을은 예로부터 전국에서 이름난 명당이였다. 풍수엔 까막눈인 이방인의 눈에도 오미마을은 교과서에서 본 ‘배산임수’ 터 그 자체이다.

게다가 이곳 오미마을에는 풍수가들이 꼽는 보석같은 땅이 세 군데나 있다. 선녀가 금가락지를 떨어뜨린 금환락지, 금거북이가 진흙 속에 묻혀있다는 금귀몰니, 금, 은, 진주, 산호, 호박, 귀한 보물 다섯 가지나 쌓여 있다는 오보교취가 바로 그곳이다. 이 땅을 찾아 집을 지으면 천운을 받아 힘 안들이고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하여, 조선시대 때부터 전국 각지의 지체 높은 양반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던 탓에 한 때 오미마을은 백 호가 넘는 집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그렇게 북새통을 이루었던 과거가 있었나 싶게 아담한 마을이 되어버린 오미마을. 지금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믿는 농부들이다. 하늘이 내려준 요행을 믿기 보다는 주어진 땅에서 자신의 운명을 일구어 내는 오미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이 키워낸 보석이 아닐까.

3. 배틀재

아스팔트길을 걷는다. 보드라운 흙길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한편으론 아기자기한 지리산의 능선이, 또 한편으론 구례의 넓은 뜰이 길벗이 되어주니, 딱딱하고 매마른 이 길이 섭섭하게만 느껴지진 않는다. 이따금 씩 씩씩 달려오는 차들을 피해 비켜서는 일조차도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얼마나 걸었을까, 두 마리의 용이 올라앉은 마을 표지판이 보인다. 용두리. 용머리마을이다. 노고단에서 시작된 용의 기운이 지리산 자락을 타고 흘러내려 섬진강의 품에 이르면 머리를 처 들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는데 그 머리 부분에 자리잡은 마을이 바로 용두마을이다.

섬진강 쪽으로 들어앉은 용두마을이 용의 머리라면, 마을 표지판이 서 있는 이곳의 용의 목 부분 쯤 되리라. 원래는 이곳 길가까지도 용두마을의 집들이 용기종기 자리를 틀었었지만, 지리산에서 솟구치는 용의 기운을 끊어버리려는 일본인들이 이곳에 길을 내면서 집들은 멀리 섬진강 쪽으로 숨어버렸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여기 큰길에선 마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야트막한 언덕은 배틀재란 이름으로 불린다. 오래 전 섬진강 물줄기가 이곳까지 들어왔었고 이 땅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이곳에 배를 메어두었기 때문에 배틀재란 이름이 붙었다는데, 지금 이곳에선 찰랑이는 섬진강물이 아스라하게만 보인다.

하지만 물길이 멀어졌다고 해서 길손이 뜸해진 것은 아니었다. 구례장에 소를 내다팔러 가는 하동사람들이 이곳 배틀재를 거쳐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열리는 소시장에 가기 위해, 해가 저물도록 길을 재촉하던 길손들에게 인심좋은 용두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잠자리를 내어주곤 했다고 한다. 집주인이 정성스레 쏘어준 소죽을 우물거리며 소들이 ‘움머~ 움머~’ 만족스러운 울음을 울면, 소주인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곤한 잠을 청했으리라.

이젠 민가도, 길손의 흔적도 사라진 이곳 배틀재를 뒤로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나의 등 뒤로 구슬픈 워낭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4. 하사마을

하사마을은 윗마을인 상사마을과 더불어 사도리라고 불린다. 사도리. 글자 그대로 풀면 ‘모래 그림 마을’이다. ‘모래 그림 마을’, 이 고운 이름은 어디서 온 걸까. 전설에 따르면 신라 말 도선국사가 이곳에서 머리를 식히고 있는데, 어디선가 도사 한 분이 나타나 모래벌판에 그림을 그려 우리나라의 풍수에 대해 알려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풍수의 시작인 이 곳 사도리.

그런데 대체 어디가 모래벌판이었던 걸까. 사방을 둘러봐도 바람결을 따라 춤추는 벼이삭들 뿐 모래 한 톨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 들판이 다 모래벌판이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밀짚모자를 푹 눌러 쓴 젊은 농부 한 사람이 곁에서 있다. 도선국사와 도사의 만남도 이러했을까. 갑작스런 만남에 휘둥그레진 나의 눈을 쳐다보며, 농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잇는다.

“이 마을 분들이 얼마나 부지런하시냐 하면은 얘기한테 ‘옛다, 호미!’ 하면은 뱃속에서 태어나올 정도로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모래벌판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 이 산 너머 문수리에서, 문수골에서 그 물을 끌어왔는데요, 호미하고 팽이로 파다보니까 맨 돌밭이거든요, 안 파지니까 고생고생하다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죽순이 쭉 나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순 따라서 팽이질을 했더니 그 고랑길이, 물길이 나더라는 거죠. 왜냐면 죽순은 수분을 먹고 자라는 식물이니까요. 그래서 그 물길을 쭉 내서 지금의 들판에 물을 대서 이 비옥한 토지로 만드셨답니다.”

들판을 바라보는 젊은 농부의 검고 거친 얼굴에선 자부심이 엿보인다. 치열한 삶의 투쟁으로 얻어낸 들판 앞에서 그저 평화로운 감상에 젖어있던 내가 부끄러워진다. 농부는 다시 말을 잇는다.

“그리고 이 우리 마을에는 주마야토라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주마야토의 뜻이 뭐냐면은, 그 전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던 이 토지면에 일제시대 때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마을을 형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물이 필요하니까 왜 우리 토지 물을 마산면 사도마을에서 끌어가느냐 해서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재판 분쟁이 생겼는데, 그 때 재판관이 지금 관습적으로 옛날부터 쭉 물을 써오던 사도마을이 그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낮에는 마산면 사도마을에서 물을 쓰고 밤에는 토지면에서 물을 써라 해서 주마야토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젊은 농부는 어느 새 성큼성큼 들판을 향하고 있다. 그의 뒷모습 위로, 논에 물을 대느라 밤낮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려댔을 두 마을 농부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그들의 땀방울로 영글어 갔을 이 땅의 곡식들. 그 한 알 한 알이 이 하사마을 사람들에게겐 보석과도 같았으리라. 하사마을의 가을 들판이 유난히 누런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이유를 이제 조금은 알 것도 같다.

5. 상사마을

하~ 샘물의 달콤함이 입 안 가득 찬다. ‘천년 마을의 달콤한 이슬과도 같은 영험한 샘’이라는 비석의 표현이 허튼소리는 아닌 듯 싶다. 지리산 약초의 기운을 받아내린 샘물의 맑은 기운이 온 몸에 퍼진다. 발끝의 피로까지도 날려버리는 듯하다. 영험한 땅의 샘물은 맑고 무겁다고 했던가. 당물샘 옆으로 쌍산재가 들어서게 된 것도 바로 당물샘물의 옹골찬 무게가 명당터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친 김에 쌍산재로 발걸음을 옮긴다. 유명한 고택답지 않게 좁고 작은 대문 탓일까. 선뜻 쌍산재 마당으로 들어서기가 망설여진다.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는데 안에서 종년의 신사 한 분이 나오신다.

“우리 증조부님의 호가 호자 서자 쓰세요. 호자가 호리병 호자예요. 호리병이 보면 입은 조그만한테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집도 보면 대문 입구에서 저희집을 봤을 때 녹음이 우거지는 봄부터 여름 지나 이런 계절이 되면 안이 잘 안보이죠. 밖에서 보시면 소담한 대문 하나에 사랑채 정도 밖에 안보입니다. 밖에서 보면 속을 알 수가 없죠.”

6대째 쌍산재를 지키고 있다는 주인아저씨의 푸근한 미소에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선다. 소박한 대문 뒤엔 의외로 너른 땅이 숨겨져 있다. 마당엔 안채와 사랑채, 건넌방이 사이좋게 모여있고 한쪽에는 집안 어른들이 쓰던 쟁기며 호미 따위의 옛 농기구와 살림살이가 옹기종기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안채를 너머로는 제법 근사한 대나무 숲길이 쇠아~ 쇠아~ 시원스런 소리를 내며 귀를 씻어준다.

“우리나라 고택들을 보면... 요즘 사람들도 그렇지만 옛날 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벼슬이 높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산다 하는 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그렇게 따라가더라구요. 솟을대문에 행랑채가 짝 있고, 규모가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위압감이. 근데 저희집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책만 보던 분들이라 이렇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품들이 그런 분들 이셨죠.”

아, 그랬구나. 책 읽기에만 몰입하고있던 선비의 집이라면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렇게 고요함과 정숙함의 미덕을 지닌 쌍산재를 주인아저씨는 왜 나그네들의 잠자리로 내어놓으신 걸까.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밖에 나가버리면 그 방이 비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일러 꺼지죠. 그다음 잡동사니 다 들어가죠, 그 안으로. 처음에 사람이 살 땐 수십 번씩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일단 사람이 거처를 안 해버리면 일주일 안들어가봐, 한 달도 안들어가봐, 바로 옆에 있는 방이라도, 그러다 몇 달 만에 들어가 보면 벽에 막 습기 차가지고 곰팡이 슬어있고. 이게 집이 상하는 주 원인이죠. 그니까 예를 들어 어느어느 방이 오늘 예약이 됐다 하면 그 방은 꼭 한 번 들어가봐야 돼요. 왕래 자체로 관리가 되더라는 얘기죠.” 집도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반질반질 윤이 나는 법이라고 주인아저씨는 연신 강조하신다. 눈길이 닿고, 오가는 발길이 잦아야 생기를 띄는 건 비단 집뿐 만은 아니리라. 길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이 들레길에도 소리없는 눈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름 모를 동행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쌍산재를 나선다.

6. 국립공원 이야기

지리산 둘레길, 그 중에서도 지리산 자락에 걸쳐진 숲길을 걷다보면 가끔 톱질이 된 채 잘려진 나무들을 만나게 된다. 나무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고루 클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베어낸 흔적이다. 다 큰 나무가 쓰러져 누운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지만 숲 전체를 위해서 이러한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리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엔 지리산 곳곳에 이렇게 쓰러져 누운 나무들의 수가 헤아릴 수도 없었다고 한다. 이 당시 나무들의 죽음은 숲에 대한 배려가 아닌 인간의 이기심이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지리산에 당시에 골짜기마다 나무를 베어가지고 숲도 엄청나게 만들고, 지리산 골짜기 마다 제재소가 들어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제재를 해서 나가고 구례도 다섯 개 정도의 제재소가 있었어요. 하루에 구례지역만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얼마나 나무가 많이 베어져 나가는지 길목마다 지켜서 차가 몇 대나 나무를 싣고 나가는지 보니까, 하루에 250대, 그러니까 화물차 250대 정도의 나무가 실려나갔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실려 나간 거죠.. 그것 뿐만이 아니고 6. 25 끝나고 건축자재가 필요하니까 일반인들도 집을 짓거나 고치기 위해서 누구나 아무렇게나 가서 나무를 베어오는 실정이었고 그래서 인제, 지리산이 화엄사 골짜기는 7부 정도까지 차판 도로가 만들어져서 나무를 계속 베어냈어요.”

일전에 만난 구례 문화원장 우두성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당시 상황은 안타깝다 못해 처참하기까지 하다. 전란 직후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하던 시절, 비바람을 막고 추위를 떨치기 위해 나무를 베어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람들을 마냥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의 필요로 인해 지리산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은 나무들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벌목이 인간의 삶마저도 위협할 것이라는 늦기 전에 깨달은 주민들이 있었기에, 다행히도 지리산은 더 이상의 상처 없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특히 구례 주민 모두가 10원씩 성금을 내어 자신들의 대표를 서울로 올려 보내 ‘지리산을 보호해 달라’는 청원을 정부에 넣었다고 한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했던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향한 소박한 마음들 덕분에 지리산은 1967년 우리나라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게 된다.

사람들의 손길에 아픈 시간도 겪고 기쁜 순간도 맞았을 지리산을 다시 한 번 둘러보며 생각한다. 내 한걸음 한걸음이 이 땅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겠구나. 지리산 자락을 걷는 발걸음이 새삼 조심스러워 진다.

7. 묵답과 방죽

황전마을에서 산비탈 숲으로 이어지는 언덕길 한쪽에 자리한 빼곡한 갈대밭. 이 갈대밭의 이름은 ‘묵답’이다. ‘묵답’. 더 이상 땅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는 ‘묵혀둔 논’이란 뜻이다. 오래 전 이 땅의 이름은 ‘다랭이논’이었다. 한 톨의 곡식마저 아쉬웠던 배고픈 시절, 마을사람들은 산비탈까지 방죽을 만들어 물을 대고 자투리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층층 계단으로 마을까지 이어진 다랭이논엔 알뜰하게 차오른 이삭들이 머리를 흔들며 힘찬 춤을 추었으리라.

하지만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난 만큼 다랭이논을 가꾸는 손길도 줄어들었다. 농기계마저 들어오지 못하는 산비탈 조각땅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땅이 되어버렸다. 길 위에서 서서 갈대의 열없는 움직임을 바라보다 괜스레 애뜻한 마음이 들어 묵답 귀퉁이에 쪼그려 앉는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갈대밭 저쪽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린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보니 고라니 한 마리가 나만큼이나 놀란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방죽으로 물을 마시러 온 것일까. 아니면 갈대밭의 서늘한 기운에 몸을 식히려 온 것일까. 답을 찾기도 전에 고라니는 휙 하니 사라져버린다.

고라니가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 보니 아차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땅은 늘 그렇듯 제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인데, 나는 인간의 편협함으로 사라진 논만 아쉬워하고 있었구나. 사람의 손길이 떠난 뒤에도, 이 땅은 저절로 뿌리내린 갈대와 잡목을 키워온 것이다. 비가 내리면 물을 품어두었다가 더운 여름날이면 증발시켜 만물의 열기를 식히는 안식처가 되어 온 것이다. 그렇게 묵답은 사람의 손을 떠나 더 큰 자연을 품어주는 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은 아쉬운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 않는다.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걸음을 옮긴다. 갈대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내 등을 시원스레 쓸어준다.

8. 황전마을_1

휘장을 두른 듯 긴 돌담에 싸여있는 아늑한 동네, 황전마을로 들어선다. 집집마다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쌓아올린 돌담의 까끌까끌한 감촉을 손으로 훑으며 한참동안 마을길을 거닐어 본다.

마을을 낀 넓은 들판에 이르자 익숙한 모습의 솟대들 사이로 우뚝하니 서 있는 움집 같은 것이 보인다. 가까이 가서 보니 대나무로 쌓아올린 탑모양을 하고 있는 달집. 돌레엔 금줄이 드리워져 있고 그 사이로 알록달록 오색찬란한 방패연들이 끼워져 있다. ‘운수 대통’, ‘소원 성취’ 방패연마다에 쓰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리고 있는데, 지나던 마을 어르신이 말을 걸어온다. *“달집 태우는 거 보려 왔는가. 쪼매만 기다려. 푸지게 놀 참임계.”*

날이 어둑어둑 해지자 멀리서 아련한 뿡과리 소리가 갹갹 개개갹- 공기를 가르다. 풍악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들판에 모여드는 사람도 하나 둘 늘어간다. 할머니, 할아버지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달집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달집에 불이 붙는 순간만을 고대하고 있다.

풍악소리가 잠시 멎는가 싶더니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이 축문을 읊으신다. ‘오냐, 내 너희 소원 모두 이루어주마’ 이런 대답이라도 하는 것일까,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가 빙그레 웃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절을 올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섰는데 누군가 내 등을 툭 친다. *“아가씨도 절 올려야지. 복은 원래 나눠가지는 거여.”* 멧쩍게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지리산 돌레길에서 만난 이 소박한 축제도 이 축제를 가득 채운 환한 웃음도 오래도록 그 대로이길.

드디어 달집에 불이 붙는다. 달집은 순식간에 별건 불기둥으로 변해 타오르고 대나무들은 연신 타닥, 타다닥 함성을 질러댄다. 이에 질세라 풍악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진다. 달집을 향해 연신 허리를 굽히는 마을 사람들의 기원도 덩달아 간절해진다.

9. 황전마을_2

둘레길은 황전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을을 감싸며 돌아나간다. 흐르는 냇물을 따라 무심히 발을 옮기는데 맞은편에서 오시던 마을 어르신이 한 마디 툇 던지신다.

“처자, 여그꺼정 와서 기양 가능가? 온 집에 마을 귀경 쪼까 하구가잉.”

그렇까? 어르신의 구수한 사투리에 발목이 잡혀 마을 안으로 들어선다. 옹기종기 들어선 시골 집들 사이로 고불고불 이어진 마을길을 걷는다. 담장 너머로 늘어진 나뭇가지들이 반가움에 악수를 청하는 듯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을회관 앞으로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높이의 돌무더기가 서 있다. 아, 이게 어르신이 말씀하신 조탑이구나. 황전마을은 풍수적으로 배 모양을 하고 있어서 돛대가 있을 자리에 이렇게 조탑을 세워 두어야 지리산의 정기가 밖으로 흘러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돌무덤을 지나치니 암전히 놓인 둥그런 바위가 보인다. 거대한 규모나 독특한 생김새를 자랑하는 기암괴석도 아닌데 ‘들돌’이란 이름까지 붙어있다.

‘두레’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던 시절, 사람들은 이런 돌을 들어보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고 한다. 무거운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더 힘든 일을 맡고, 들지 못한 사람들은 덜 힘든 일을 나눠 맡는 것이 두레식의 공평함이었나 보다. 이 들돌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자니 그 시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 듯하다.

돌쇠 : (무거운 돌을 드느라 힘쓰는 소리) 으라차차~

촌장: 허허 우리 돌쇠가 이제 농사일을 도울 나이가 됐구나.

들돌을 번쩍 들어 올리는걸 보니

돌쇠 : 촌장님 더 큰 돌도 들 수 있어요

촌장 : 하하 김씨네 집안에 장사가 나왔구나.

자 다음은 이씨네 아들 광수가 나와 이 돌을 들어 보거라.

광수 : (돌을 드느라 용을 써보지만 안 되는) 으~~ 끄.

촌장 : 어허, 광수는 아직 농사일을 돕기에는 힘이 부족하구나.

광수 : 아저씨 저도 아버지를 따라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촌장 : 음...올해까지는 어머니를 도와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을 돕고 내년에 들돌들기를 한 번 더 해 보자꾸나.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은 사내아이들은 이 무거운 돌을 하루라도 빨리 들어보이고 싶어서 안달이었을 테지. 더 무거운 돌을 들어보인 녀석은 한 동안 동네를 으스대며 돌아다녔을 테고.

이런 유쾌한 행사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의 맡은 바 일을 해내며 함께 마을의 풍요를 일구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농군들의 마음이 모아질수록 두레의 힘은 점점 강해졌을 테고. 두레가 번성하던 시절엔 지체 높은 양반도 농부들이 일하는 들판에선 말을 내려 걸어가야만 했다고 한다. 그것이 모를 심느라, 김을 매느라 허리 한 번 펴지 못하는 농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을 것이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신발끈을 고쳐 맨다. 지금 내겐, 묵묵히 이 길을 걸어내는 것이 이 땅의 농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테니까.

10. 종복원기술원

둥글둥글한 바위들이 올망졸망 들어선 개천 위 아치형 다리를 지나자 따뜻한 햇살을 온 몸으로 품으며 서 있는 건물이 나타난다. 지리산 산중에 이 현대식 건물은 뭘까? 벽에 가지런히 붙은 간판을 읽어본다. ‘종복원 기술원’. 아! 지리산 반달가슴곰! 이곳이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곳이구나.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아기 반달가슴곰의 탄생 소식이 기억났다.

2005년에 지리산에 방사돼 울무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무사히 건강한 새끼를 낳은 어미 반달가슴곰의 모습. 아기 곰을 확인하러 온 연구원들을 보고 놀라 잠에서 깨 두 눈을 붉게 빛내다가도, 이내 새끼들을 품에 안고 다시 잠이 드는 어미 곰의 모습이 지리산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리산엔 100마리가 넘는 반달가슴곰이 살았지만 밀렵꾼들의 욕심에 보금자리를 잃고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의 운명을 바꿔놓은 주인공이 바로 2002년에 세워진 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이다. 우리나라 반달가슴곰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곰을 러시아 연해주, 북한, 중국에서 들여와 이 땅에 적응을 시켜서 지리산에 새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흥미로운 건, 이곳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들은 어미의 품을 떠난 새끼곰이라는 사실이다. 어미의 손도 사람의 손도 탄 적이 없기에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곰들만 지리산에 돌려보낸 다고 한다. 어미의 정(情)도 느껴보지 못한 채 혼자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 하는 이 곰들을 떠올려 보니 한편으로 애뜻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어머니의 품을 닮은 지리산이라면 이 곰들에게 더 크고 넘치는 정을 주리라 생각하니 애뜻함이 한 순간에 가시는 듯하다.

‘반달가슴곰들아, 무럭무럭 자라서 굳건하게 살아남아 주렴.’ 종복원기술원을 통해 이 땅에 첫발을 내딛은 반달가슴곰들이 지리산의 새 식구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도해본다.

11. 수한마을

따가운 햇살 아래 널려있는 고추들, 누렇게 영근 호박들이 정겨운 이곳은 수한마을이다.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담벼락에 심상치 않은 글귀를 발견했다.

“부당수세 폐지하여..”

여유로워만 보이는 수한마을과는 어울리지 않게 딱딱한 문구다.

80년대만 해도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저수지나 보의 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가 농민들에게 돈을 내도록 했다고 한다. 그것이 세금 아닌 세금인 ‘수세’ 였다. 당시 가뜩이나 쌀값이 떨어져 가을날 황금 들판을 보면서도 한숨만 내설 수밖에 없었던 농사꾼에게 ‘수세’는 너무도 가혹한 것이었으리라.

참다못한 수한마을 사람들은 ‘수세’를 곡식으로 대신 내겠다는 선언을 하게 된다. 이런 움직임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갔고, 마침내 한반도의 모든 농군들이 한데 뭉쳐 ‘수세 철폐’의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았다고 한다.

지리산 골짜기가 선사한 물에 값을 매겨 농사꾼들에게 팔다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을 테다. 차가운 물이 골골이 흘러넘친다 하여 ‘물한리’ 또는 ‘수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더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극심한 가뭄이 들어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수한마을에서 물 값을 거둬가는 건 마치 곳간의 곡식을 퍼내어 빼앗아가는 짓이나 진배없었으리라.

이제 ‘수세’ 사건은 흘러간 물처럼 과거사가 되어버렸지만, 자연의 섭리를 지켜낸 수한마을 사람들의 정신은 늘 이 자리에서 흐르고 있을 것이다.

12. 방광마을

방광마을. 소리내어 읽다보면 약간은 민망해지는 이름이지만,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빛을 내뿜는 마을’이라는 찬란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을이 이렇게 독특한 이름을 갖게 된 데는 이름만큼이나 흥미로운 사연이 전해진다. 지리산 한 암자에 살던 노승과 어린 스님이 이 마을을 지나다 어린 스님이 조 세 알을 주워왔는데, 이를 본 노승이 ‘너는 주인이 주지 않은 곡식을 탐하였으니 주인집에서 3년간 일을 해 빛을 갚으라’고 하며 어린 스님을 소로 변신시켰다고 한다. 이 소를 주인이 발견해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소가 눈 쇠똥이 땅에 떨어지면 빛을 내면서 곡식이 잘 자랐다고 해서 ‘방광’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빛나는 땅에서 얻은 풍요로움 덕분이었을까, 이 방광 땅은 오래 전 이곳 구례 땅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었다. ‘방광마을’이란 이름도 실은 판관들이 지내던 마을이란 뜻이다. 이곳 사람들은 판관을 팡팡이, 팡팡이 하고 불렀는데 그것이 굳어져서 ‘방광’이 된 것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곳은 구례의 살림살이를 두루 보살피는 관리들이 모여있던 팡팡이마을이었던 것이다.

방광마을은 조선시대엔 전장에서 쓸 군량미를 지어 곳곳으로 보냈고 1930년대까진 남원에서 구례로 들어오는 들머리였던 덕에 지나는 나그네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길목마다 선 주막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노랫소리와 술도가에서 풍겨져 나오는 술익는 냄새가 지나는 길손의 발목을 붙잡았으리라.

계다가 마을에서 가까운 천은사 뒷산은 웅장한 숲이 자리잡고 있어 1960년대엔 매일 천 명이 넘는 나무꾼들이 오르내렸다고 한다. 이렇게 천은사 숲은 그 풍요로움을 지리산 마을에 고루 선사하였고, 덕분에 사람들이 끼니를 잇고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하니, 이 숲에 ‘천은대학’이란 별명이 붙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석탄과 석유에 밀려 끝없는 지계의 행렬은 사라졌고, 이제 고요한 시간만이 방광마을을 흐르고 있다. 마을 앞, 유난히 푸지게 우거진 느티나무만 그 시절 그 영화를 회상하듯 조용히 눈을 감고 서 있다.